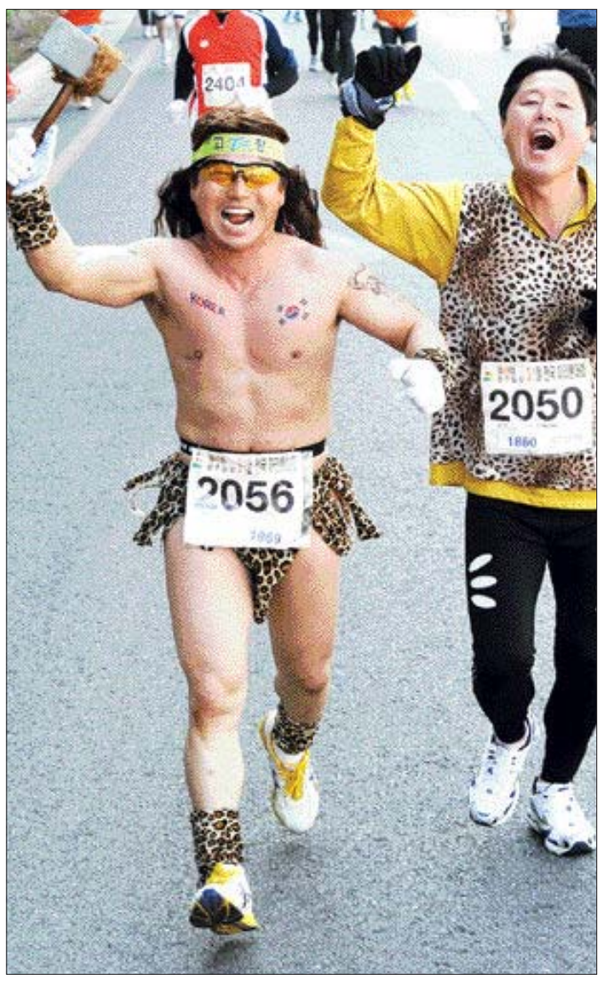
새 봄속으로 희망의 레이스

상쾌한 출발

하프코스 출전자들이 경쾌한 발걸음으로 출발지인 광주월드컵 경기장을 나서고 있다. /최현배기자 choi@kwangju.co.kr



"우리는 원시인" 하프코스에 출전한 '고창 고인돌마라톤동호회' 회원들이 고인돌로 유명한 고창을 홍보하기 위해 원시인 복장으로 레이스를 펼쳐 눈길을 사로잡았다. /나명주기자 mjna@kwangju.co.kr

"쥐나지 마세요" 동신대 생활체육학과 여가복지동아리 회원(지도교수 김홍식)들이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 스포츠 마사지, 테이핑 시술 등 자원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. /최현배기자 choi@kwangju.co.kr

자! 출발합시다 대회에 참석한 각급 기관 단체장과 내빈들이 풀코스 출발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. 왼쪽부터 강박원 광주시의회의장, 임우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, 나무석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, 문병민 광주지방보훈청장 , 김진영 광주일보사장, 김창준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. /나명주기자 mjna@kwangju.co.kr